



어린이 도서 '입체북 시대'

다양한 팝업과 기발한 놀이 요소로 흥미 '놀이와 학습' 효과 동시에 기대

인천에 사는 주부 하모(31) 씨는 아이들 책에 관심이 많다. 3살과 4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위해 어떤 책이 좋은지 수시로 권장도서 목록을 살펴본다. 그러다 입체북《너는 누구니?》(미세기)를 구입하게 됐다.

“처음에는 그동안 봐왔던 그림책들과 달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읽어주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작은 아이는 팝업을 이리저리 장난감처럼 만져보고 뜯어보려고 하고 큰 아이는 엄마가 역할극 하듯이 읽어주니까 똑같이 흉내도 내고 그래요”

어린이 도서에 다양한 입체 효과를 첨가한 '입체북' 이 인기다. 들춰볼 수 있는 덮개,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탭, 자유자재로 펼쳐지는 팝업 등은 어린이 독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교육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비싼 가격대임에도 수요가 증가한다.



〈입이 큰개구리 캐릭터 손가락인형〉



〈입이 큰개구리〉

키스 포코너 자음 | 미세기 | 값 10,000원

책에 플랩·팝업 삽입, 놀이 요소 가미

작년 9월에 출시된 넥서스주니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매니아 층도 확보하고 있다. 잇달아 출간된 《오즈의 마법사》《공룡의 비밀》 세 권 모두 세계적인 입체북 전문가 로버트 사부다의 작품. 색상의 화려함과 입체 장식의 정교함이 성인들에게도 어필해 소장품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 입체북 시장에 새로운 봄을 일으켰다.

토이북(Toybook)으로도 불리는 입체북은 책 속에 플랩(Flap)과 팝업(Pop-up) 장치를 삽입해 놀이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국내 입체북 시장을 개척한 미세기출판사는 초기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출간으로 어린이 입체북계에선 꽤 명성을 얻게 됐다.

미세기의 한 관계자는 “입체북은 글을 모르는 미취학 아동들과 부모가 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한다”면서 “특히 텍스트와 그림 수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책을 장난감처럼 친근한 대상으로 느

끼도록 도와주면서 독서 습관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도 팝업 형태의 입체북이 있었고 국제 아동도서전을 통해 각국 어린이 도서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원서를 자주 접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입체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나는 팝업북’ 시리즈를 기획한 비룡소의 유수미 과장은 “외국도서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작부터 관심이 일었다.”며 “출판사들도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제작 여건이 쉽지 않았고 시장성을 고려해 출간 시기를 고려하다 작년부터 여러 곳에서 출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인기를 끌고있는 입체북은 정교한 팝업과 화려한 색상,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등으로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 해외 ‘코 에디션’ 출간, 최근 ‘국내산’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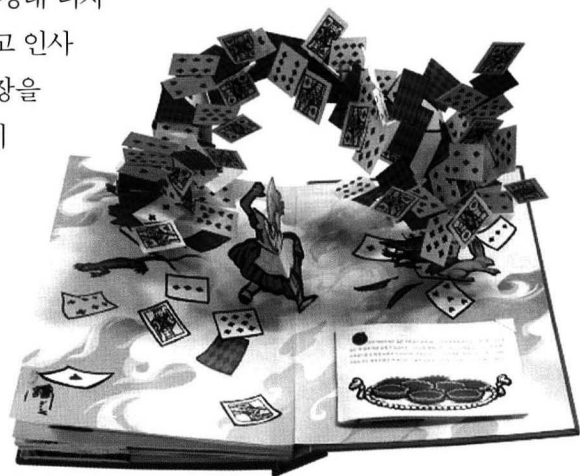
지난해 말부터 출간 러시를 보여온 입체북은 대부분 해외 출판사와 코 에디션 형태로 출간된다. 코 에디션(co-edition)이란 해외원서의 판권을 체결해 여러 국가의 출판사가 함께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는 기획에서 출간까지 인건비 등 제작 원가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경험부족으로 해외 작품들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제작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독자 반응이 좋아 여러 권을 만들고자 할 경우 자체적으로 부수를 선정해 만들어 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입체 효과에 대한 체크 사항과 판권을 소유한 해외 출판사와의 잦은 검수 등 대체로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신나는 팝업북〉
케이트 페티 외 지음 | 비룡소 | 값 28,000원

이러한 이유로 규모가 큰 출판사라 할지라도 직접 입체북 파트를 만들어 전문적인 해외판권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입체북 코에디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사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보림은 국립환경대 디자인학과와 산학협동으로 순수 자체 제작물인 《모자 쓰고 인사해요》라는 입체북을 선보였다. 기존의 입체북이 책장을 펼치면 다양하게 펼쳐지는 팝업이 눈길을 끄는 데 비해, 보림의 신간은 책을 직접 머리에 쓰고 책장을 넘기면서 각국의 모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립환경대학교 디자인학과 수업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이며, 향후 보림과 산학협동으로 몇 권의 유사한 책을 추가로 기획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로버트 사부다 제작 | 넥서스주니어 | 값 38,000원

넥서스주니어의 입체북 기획팀 윤양희 씨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시장성이 좋아 지속적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입체북은 색감과 팝업 등이 어필하는 영유아에서부터 책을 읽기 싫어하는 초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흥미를 주며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취재_송보경 기자